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
실시요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I. 서론

1. 경계선 지능

경계선 지적 기능(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BIF)의 줄임말인 경계선 지능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에 속하는 경우를 지칭한다(APA, 2000). 이러한 지능지수는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과 -2 사이를 의미한다. 정상지능은 지능지수가 85 이상인 경우를, 기능적 지적장애 위험군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은 그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김동일 외, 2021; Peltoporo et al., 2014). 지능지수를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경계선 지능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3.6%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서해정 외, 2019). 그러나 아직까지 경계선 지능의 명확한 정의나 기준이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계선급 지능’, ‘느린학습자’, ‘경계선 지적지능’, ‘경계선 지적 발달’ 등과 혼용되고 있다(박윤희 외, 2022). 그러나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합의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동일 외(2021)는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의학적, 교육적, 정책적 정의를 구분하였다. 각각을 살펴보면, 의학적 정의는 미국정신의학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에서 제안하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 기준에 의거한다. DSM-I 과 DSM-II에서는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약 1-2 표준편차 낮은 경우를 경도정신결함(mild mental deficiency)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오늘날 경계선 지능의 범위와 유사한 68에서 85 사이의 지능지수를 의미한다. 이후 개정된 DSM-III에서는 지능지수 뿐만 아니라 적응기능을 함께 고려하여 정신지체를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계선 지능을 정신지체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로써 정신지체 출현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는데(Wieland & Zitman, 2017), 경계선 지능이 더 이상 정신지체로 진단받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약 30년 동안은 경계선 지능 분류가 유지되어 왔으나, 새롭게 개정된 DSM-IV-TR(2000)과 DSM-5(2013)에서는 개인의 적응기능을 조금 더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적기능을 기준으로 진단되어온 경계선 지능에 대한 정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는 한계점을 가져왔다(Wieland & Zitman, 2017).

다음으로, 교육적 정의를 살펴보겠다. 1960년대 후반 미국정신지체협회에서는 경계선 지능을 ‘6시간 정신지체’로 명명하였다. 학교 외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지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6시간 동안에는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을 의미하는 용어다(PCMR, 1969). 그러나 이 범주에 속한 학생들은 지능지수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범위에 비해 높아 특수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듯 경계선 지능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적절한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물론 경계선 지능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는 점차 높아지는 추세지만, 이들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 시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어서, 경계선 지능의 정책적 정의로는 「장애인복지법」 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을 참고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에 개정 공포된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느린학습자 지원법’이 추가되면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대표적 법령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느린학습자 지원법’에서는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과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 학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진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 추세다.

김동일 외(2021)는 이상의 의학적, 교육적, 정책적 정의를 종합하여, 대안적 정의를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적 능력의 제한(IQ 71-85)으로 인해서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가지지 못하므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면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이 기대되는 9~24세 청소년을 말한다.’와 같이 제시하였다. 다시 말해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은 지능의 제한으로 인해 학업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성공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김동일 외, 2021). 따라서 경계선 지능을 진단할 때는 지능지수보다는 학업적 어려움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학생이 나타내는 지원 필요 정도에 따라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의 기초 연구인 ‘느린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한 김태은 외(2020)는 지능검사 결과 나타난 수치 이외에 학생의 적응 행동에서의 결함을 포함하여 느린 학습자를 ‘IQ 71-84 사이의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적응 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였다.

2. 경계성 지능의 특성

경계선 지능의 특성은 크게 언어, 기억력, 지각, 집중, 처리속도의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느린학습자 선별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하위 영역이기도 하다.

가. 언어(language)

언어는 언어 능력을 활용한 의사소통, 언어적 추론, 이해, 개념화, 단어 지식 등을 의미한다(김연수, 2021). 경계선 지능 학생은 대체적으로 초기 언어발달이 느리며,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국어나 언어영역에서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게 된다(김동일 외, 2021). 학습의 기초가 되는 읽기와 쓰기에도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일반학생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중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한다(김근하, 김동일, 2007). 나아가 학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언어 능력에도 어려움이 나타나는데(김선경 외, 2021; 김주영, 김자경, 2016; 안혜리 외, 2021). 이러한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은 학교생활 부적응, 또래로부터의 소외, 정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중도 학업 포기로도 이어질 수 있어서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강옥려, 2016). 박윤희 외(2022)는 경계선 지능 학생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적 지원으로 낱말해독, 어휘추론, 다의동사, 직유이해, 보조사, 상위언

어능력, 화용언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나. 기억력(memory)

기억력은 제시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머릿속에 정보를 유지하는 능력을 말한다(김연수, 2021). 경계선 지능 학생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 모두에 결함을 보이게 된다(Shaw, 2010; Verguts & Debeck, 2001). 생애주기별로는 초등학생 시기부터 낮은 기억력이 관찰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진학할수록 기억력의 어려움이 처리속도나 집중력의 어려움으로까지 확장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김동일 외, 2021).

다. 지각(perception)

지각은 전체와 부분의 관계성을 통합하고 시각적인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시각과 운동의 협응능력을 조절하는 등을 모두 포함한다(김연수, 2021). 아직까지 경계선 지능 학생의 지각 능력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김동일 외(2021)에 의하면 경계선 지능 학생을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상황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주변 분위기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적절하게 파악하지 못해 눈치가 없다는 오해를 받거나 또래로부터 미움받기도 한다고 하였다.

라. 집중(attention)

집중은 과제를 수행하거나 안내사항을 숙지할 때 필요한 주의력과 집중력을 의미한다. 경계선 지능 학생을 양육하는 부모와 학교에서 지도하는 교사 집단은 주의집중의 어려움이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주장한다(김동일 외, 2021). 부모 보고에 의하면 주의 집중력의 부족으로 ADHD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집중의 어려움이 기초적인 학습 태도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어떤 부모들은 경계선 지능 학생이 관심을 나타내는 특정 영역에는 집중력이 매우 높아진다고 보고하면서 집중의 편차가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김동일 외, 2021). 이러한 집중의 문제는 학교에서의 낙인과 학교 부적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마. 처리속도(processing speed)

처리속도는 간단한 시각적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변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연수, 2021). 경계선 지능 학생은 일반적으로 처리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는데 일반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김동일 외, 2021). 경계선 지능 학생의 처리속도를 평균지능 학생 및 학습장애학생과 비교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다른 두 집단 학생에 비해 경계선 지능 학생의 처리속도가 현저하게 부족하였다(Bonifacci & Snowling, 2008; Napora-Nulton, 2003).

II. 검사 실시 방법 및 주의 사항

1. 실시 대상

본 검사의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다. 이 검사의 목적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선별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자녀를 경계선 지능으로 의심하여 검사를 의뢰한 학생, 담임교사가 학생을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하고 지도한 결과 학습이나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학년 초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미도달로 진단된 학생 등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 검사 소요 시간

본 검사는 약 15분 정도 소요된다. 일부 문항에 대해 선뜻 응답하기 어려워 학생의 행동을 직접 관찰해야 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3. 검사자

본 검사는 교사 평정 검사로, 대상 학생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대상 학생을 최소한 3개월 이상 지도한 경험이 있는 담임교사 또는 교과전담교사 등이 실시한다.

4. 검사 시 유의 사항

본 검사는 대상 학생이 평소에 보이는 언어, 기억, 지각, 집중, 처리속도 특성에 대해 평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여부에 대한 신뢰롭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검사는 학생의 학년에 따라 집단 구분점(cut-off point)이 다르므로 학생의 학년을 정확하게 기입하도록 한다.
- 본 검사는 대상 학생을 최소 3개월 이상 지도한 경험이 있는 담임교사나 교과 전담교사가 실시해야 하기에 1학년 2학기 초 ~ 6학년 2학기 초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검사자가 일부 문항을 관찰하지 못하여 바로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여 학생에게 해당 문항을 지시하거나 질문하여 학생의 반응을 직접 관찰한 후에 평가하도록 한다.
- 검사 문항에 대한 응답은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쉽게 응답 가능한 것부터 응답하되 전체 문항에 대해 모두 응답해야 한다.
- 검사 문항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로 '1=그렇지 않다', '2=조금 그렇다', '3=그렇다', '4=매우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한다.

5. 검사 실시 및 채점

가. 검사 실시

- 검사자는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의 검사 기록지를 준비한다.
- 체크리스트 실시 전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나 특이사항(예: 학생의 가정환경(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해 둔다.
- 학생의 학년 등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교사(평가자)란에 검사 실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모든 문항의 평정이 끝나면 원점수를 계산하여 점수란에 기록한다. 그런 다음 학생의 학년에 대한 원점수 값을 기준으로 “경계선 지능 위험군”, “경계선 지능 탐색군”, “일반군” 중 해당되는 곳에 표시한다.
- 검사에서 대상 학생의 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다면 별도로 기록해 둘 수 있다.

나. 채점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경계선 지능 학생 변별에 중요한 하위 요인별로 언어 5문항, 기억력 6문항, 지각 4문항, 집중 5문항, 처리속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이다. 예컨대, 1번 문항에 대한 응답이 ‘그렇지 않다’ 라면 1점에 해당한다. 1번부터 23번 문항까지 모두 응답한 후 전체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총점을 구한다. 따라서 본 검사의 점수의 범위는 최저 23점에서 최대 92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경계선 지능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결과처리 및 해석

1. 결과처리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값은 원점수이자 총점이 된다. 총점은 기록지의 평가 정보란에 있는 ‘총점 (원점수)’ 란에 기록한다. 그리고 <부록> 학년별 규준에서 해당 원점수가 어느 집단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경계선 지능 위험군”, “경계선 지능 탐색군”, “일반군”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한다. 단, 본 검사는 학년 별 기준 점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년을 잘 확인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표 1>과 같이 4학년 학생 A의 원점수 총점이 63이라면 ‘원점수’ 란에 63을 기입한다. 4학년의 경우, 원점수 60점 이상이 경계선 지능 위험군이므로 학생 A는 경계선 지능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한다.

<표 1> 체크리스트 결과 (예시_4학년)

교사(평가자)	000		
점수	원점수: 63점		
학생 학년	4학년		
집단 판정	경계선 지능 위험군	경계선 지능 탐색군	일반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0점 이상	54점 이상~60점 미만	54점 미만
5학년			
6학년			

2. 해석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 결과의 해석은 평가정보에 따른다. 위의 예에서 원점수 63점을 얻은 4학년 학생은 백분위 89로 전체 학생을 100명으로 하였을 때 89번째에 해당한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은 11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점수 63점은 전체 학생 점수 분포에서 높은 점수에 해당하며 ‘경계선 지능 위험군’으로 판정할 수 있다.

3. 결과 판정

각 지역별로 표집한 초등학교 1~6학년 총 1,845명을 대상으로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실시하였을 때, 각 학년별 경계선 지능 미의심 집단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백분위 85 이상을 경계선 지능 위험군, 백분위 75 이상을 경계선 지능 탐색군, 백분위 75 미만을 일반군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의 <부록>과 같이 경계선 지능 위험군은 원점수로 1학년 64점, 2학년 62점, 3학년 59점, 4학년 60점, 5학년 56점, 6학년 60점으로 나타났다. 경계선 지능 탐색군은 백분위 75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측정의 표준오차 및 임상적 고려 등을 감안하여 좀 더 폭넓게 경계선 지능 학생을 선별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위험군’으로 판정된 학생의 경우 보다 정밀한 진단을 위하여 교육청에 의뢰하여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경계선 지능 탐색군’으로 판정된 학생은 교사의 지속적인 교실 관찰을 권유한다.

< 부 록 >

교사(평가자)			
점수	원점수: 점		
학생 학년	학년		
집단 판정	경계선 지능 위험군	경계선 지능 탐색군	일반군
	□	□	□
1학년	64점 이상	58점 이상~64점 미만	58점 미만
2학년	62점 이상	53점 이상~62점 미만	53점 미만
3학년	59점 이상	53점 이상~59점 미만	53점 미만
4학년	60점 이상	54점 이상~60점 미만	54점 미만
5학년	56점 이상	51점 이상~56점 미만	51점 미만
6학년	60점 이상	52점 이상~60점 미만	52점 미만